

'2도움' 이강인 '유럽 주간 베스트 11'

개막전 맹활약...ESPN 선정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라리가) 개막전에서 멀티 도움을 기록한 이강인(19·발렌시아)이 ESPN 데포르테스 선정 '유럽 주간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의 스페인 채널인 ESPN 데포르테스가 16일(이하 한국시간) SNS를 통해 공개한 베스트11에서 이강인은 호세 루이스 모랄레스(레반테)와 4-4-2 대형의 최전방 투톱으로 선정됐다. 이강인은 14일 레반테와의 2020-2021시즌 라리

가 1라운드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71분간 도움 2개를 올리며 팀의 4-2 승리에 앞장섰다.

발렌시아가 0-1로 끌려가던 전반 12분 정확한 코너킥으로 동점 골을 도왔고, 팀이 다시 1-2로 뒤쳐진 전반 39분에는 막시 고메스의 골을 도와 다시 한번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이강인은 21세기 이후 발렌시아의 정규 리그 한 경기에서 도움 2개를 기록한 최연소(19세 207일) 선수가 됐다.

이전까지 구단에서 최연소 기록을 보유한 선수는 후안 마타로 2008년 20세 150일의 나이에 도움 2개를 기록했다.

독일 분데스리가와 이탈리아 세리에A가 아직 개

막하지 않아 이번 주간 베스트에는 라리가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 선수들만 포함됐다.

미드필더진에는 윌리안(아스널), 제프 헨드릭(뉴캐슬 유나이티드),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이상 잉글랜드), 테지 사바니에(몽펠리에·프랑스)가 이름을 올렸다.

수비진에는 앤드루 로버트슨(리버풀), 스콧 맨(크리스털 팰리스·이상 잉글랜드), 에메르송(레알 베티스·스페인), 웨슬리 포파나(생테티엔·프랑스)가 선정됐다.

골키퍼 자리는 스티브 만단다(마르세유·프랑스)가 차지했다. /연합뉴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라리가) 개막전에서 멀티 도움을 기록한 이강인이 16일(한국시간) SNS를 통해 공개된 ESPN 데포르테스 선정 '유럽 주간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알사드 남태희 "나도 2도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알아인과 3-3 무승부

카타르 프로축구 알사드의 남태희(29)가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조별리그 경기에서 '멀티 도움'을 올렸으나 팀은 승점 1에 만족해야 했다.

남태희는 16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알아인(아랍에미리트)과의 2020 ACL 조별리그 D조 3차전에서 전반 35분 아크람 아피프의 골, 후반 15분엔 바그다드 부네자의 골을 어시스트했다.

4-1-4-1 포메이션의 2선 중앙에 산티 카소틀라와 선발로 나선 남태희는 0-1로 끌려다닐 때 아피프의 동점 골을, 2-2로 맞선 가운데 앞서 나가는 부네자의 득점포를 돕는 등 후반 35분 모하메드 와드와 교체될 때까지 뛰며 맹활약했다.

그러나 팀은 후반 22분 부알렘 쿠키의 자책골이 나오면서 3-3으로 비겼다.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이 이끄는 알사드는 조별리그에서 1승 2무로 승점 5를 기록, 이남 세파한(이란)을 2-0으로 꺾은 알나스트(사우디아라비아) 2승 1무(승점 7)에 이어 D조 2위에 자리했다.

이번 시즌 ACL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서아시아 지역은 2월, 동아시아 지역은 3월 초 이후로 중단됐다. 전날 A·B조 경기로 7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아시아 지역(A~D조)은 카타르에 모여 조별리그 일정을 다시 시작했고, 한국 K리그 팀이 참가하는 동아시아 지역(E~H조)은 11월 재개 예정이다.

이날 열린 C조 경기에서는 알두하일(카타르)이 사르자(아랍에미리트)를 2-1로, 페르세폴리스(이란)가 알타아윈(사우디아라비아)을 1-0으로 꺾었다.

C조에서는 알타아윈과 알두하일이 나란히 2승 1패(승점 6)로 1·2위를 달렸다.

ACL 조별리그에서는 4개 팀이 한 조로 경쟁해 각 조 1·2위가 16강에 진출한다. /연합뉴스

베일, 손흥민과 호흡 맞출까

BBC "토트넘, 영입 협상 중"

손흥민(28)이 개러스 베일(31·웨일스)과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에서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2013년 당시 역대 최고 이적료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로 옮겨 간 베일을 토트넘이 다시 영입하려 협상에 나섰다는 소식이 현지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영국 BBC는 15일(한국시간) "토트넘이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베일 재영입을 위해 협상 중이다"라고 보도했다.

2006년 사우샘프턴 유니폼을 입고 프로 데뷔한 베일은 이듬해부터 뛴 토트넘에서 맹활약하며 스타로 자리매김했고, 2013년 9월에는 레알 마드리드로 옮겼다. 당시 그의 추정 이적료는 8600만 파운드로, 역대 유럽축구 최고액을 기록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첫 시즌 프리메라리가 15골을 터뜨리는 등 안착했으나 최근엔 잦은 부상과 부진, 지네딘 지단 감독과의 마찰 등으로 '계류' 신세가

됐다. 지난해에는 중국 슈퍼리그의 장쑤 쑤닝으로 이적이 추진됐으나 불발됐고, 최근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에이전트 조너선 바넷은 BBC 웨일스와의 인터뷰에서 "베일은 여전히 토트넘을 사랑한다. 토트넘은 그가 있고 싶어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BBC는 "토트넘 입장에서 최대 관건은 베일의 주급이다. 여전히 계약이 남은 그의 주급은 60만 파운드(약 9억 20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하며 임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EPL)를 6위로 마쳐 가깝스로 유로파리그 예선에 합류한 토트넘은 13일 2020-2021시즌 EPL 개막전에서 에버턴에 0-1로 져 새 시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베일이 합류한다면 손흥민과 양쪽 날개를 갖춰 최전방을 책임지는 해리 케인과 함께 정상급 공격진을 꾸릴 수 있다.

한편 BBC는 토트넘이 마찬가지로 레알 마드리드 소속인 스페인 국가대표 측면 수비수 세르히오 레길론(24)과의 계약에도 근접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역전의 명수 덴버

또 1승 3패 열세 딛고 3연승

NBA 서부 컨퍼런스 결승 진출

덴버 너기츠가 미국프로농구(NBA) 사상 최초로 단일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1승 3패 열세를 두 번이나 이겨낸 팀이 됐다.

덴버는 16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어드밴티스 아레나에서 열린 2019-2020 NBA 플레이오프 서부 컨퍼런스 2라운드(7전 4승제) 최종 7차전에서 LA 클리퍼스를 104-89로 물리쳤다.

1승 3패로 베팅 끝에 몰렸다가 3연승 한 덴버는 2008-2009시즌 이후 11년 만에 다시 서부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했다.

서부 컨퍼런스 결승에서는 '킹' 르브론 제임스가 이끄는 LA 레이커스를 상대한다.

덴버는 1984-1985시즌과 2008-2009시즌에 모두 LA 레이커스와 컨퍼런스 결승에서 만나 패해 이번엔 설욕을 노린다.

NBA 역사상 단일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두 차례 1승 3패 열세를 이겨낸 팀은 올해 덴버가 최적이다.

덴버는 유타 재즈와 1라운드에서도 1승 3패에서 3연승 했다.

반면 LA 클리퍼스는 1970년 창단 이후 최초로 컨퍼런스 결승 진출에 1승만을 남겼으나 끝내 그 1승을 채우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특히 LA 클리퍼스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커와 이레너드, 폴 조지 등 스타 플레이어들을 영입하고도 컨퍼런스 결승 진출의 숙원을 풀지 못했다.

LA 클리퍼스는 1승만 더하면 컨퍼런스 결승에 오를 기회를 이날까지 8번이나 잡았지만, 해당 경기 8전 전패를 당했다.

전반까지 LA 클리퍼스가 56-54로 앞섰지만 3, 4쿼터 함께 33점밖에 넣지 못하는 공격 난조에 시달렸다.

특히 4쿼터 시작 후 7분이 지날 때까지 자유투로 2점밖에 넣지 못하는 등 후반에 일방적으로 밀렸다. 덴버는 자말 머리가 40점을 넣었고, 니콜라 요키치는 16점, 22리바운드, 13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을 해냈다.

반면 LA 클리퍼스는 믿었던 레너드가 14점, 조지는 10점에 묶이며 사상 최초로 LA 레이커스를 플레이오프에서 만나는 시나리오도 무산됐다.

앞서 열린 동부 컨퍼런스 결승 1차전에서는 마이애미 히트가 보스턴 셀틱스를 117-114로 꺾고 먼저 1승을 따냈다.

경기 종료 23초 전 보스턴 켈바 워커에게 중거리 포를 얻어맞고 113-114로 역전당한 마이애미는 종료 12초 전에 지미 버틀러가 골 밑 돌파에 이은 상대 반칙으로 3점 플레이를 완성, 116-114로 다시 앞섰다. 이어진 수비에서는 뱀 아데바요가 보스턴 제이슨 테이텀의 덩크슛 시도를 블록슛으로 막아내며 귀중한 1승을 선취했다. /연합뉴스

골퍼의 무덤...웃는 자 누구?

US오픈 오늘 개막...우즈 "윙드풋 골프클럽 어렵기로 1~2등"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올해 US오픈이 열리는 장소인 윙드풋 골프클럽을 자신이 경기를 치러본 장소 중 가장 어려운 코스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우즈는 16일 미국 뉴욕주 머매라넥의 윙드풋 골프클럽에서 열린 제120회 US오픈 골프대회 기자회견에서 "이 코스와 오르몬트, 커누스티 세 곳은 언제라도 메이저 대회를 열 수 있는 장소"라며 "아마 이곳과 오르몬트가 1, 2위를 다투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17일부터 올해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US오픈이 열리는 윙드풋 골프클럽은 어렵기로 유명한 장소다.

이 장소에서 지금까지 5차례 US오픈이 열렸는데 언더파 스코어로 우승한 사례는 1984년 퍼지 질러(미국)의 4언더파가 유일하다.

최근 US오픈이 이곳에서 열린 때는 2006년이었는데 당시 제프 오길비(호주)가 5오버파로 우승했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채널은 "페어웨이가 좁은 데다 러프가 길고 그린 굴곡도 심하다"며 올해도 선수들의 고전을 예상했다.

우즈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윙드풋 골프장의 난도를 거의 '세계에서 1, 2위'로 평가한 것은 그의 2006년 대회의 안 좋은 기억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 우즈는 1, 2라운드에서 연속 76타를 치고 컷 탈락했다. 프로 데뷔 후 메이저에서 처음 컷 탈락을 경험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2006년 5월 아버지 얼이 세상을 떠난 우즈는 부친상 이후 첫 대회로 윙드풋에서 열린 US오픈을 택했지만 컷을 통과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타이거 우즈(미국)가 16일 미국 뉴욕주 머매라넥의 윙드풋 골프클럽에서 열린 US오픈 골프대회 연습 라운드 중 11번 홀 페어웨이에서 샷을 날린 뒤 공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물란
2관	물란
3관	기기괴괴 성형수, 지니어스 독
4관	매지컬: 공주를 웃겨라
5관	오 문화
6관	기기괴괴 성형수
9관	테넷
7관 씨네커튼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아트랙션
8관 씨네커튼	뉴유턴트, 더 렌탈: 소리없는 감시자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경계의 공간

GAC기획전시
경계의공간
2020. 9.1.(화) ~ 11.1.(일)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운드 드라마

알폰스 도데의 '별'

2020. 9.24.(목) AM 11:00, PM 3: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11시 음악산책

정재형의 프롬나드

2020. 9. 29.(화) AM 11: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